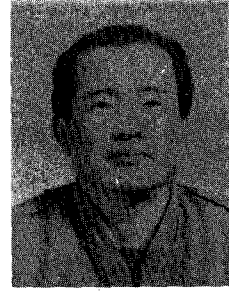




인천분회를 찾아서



취재 : 박 태 남

(이태규 분회장)

서울역에서 전철을 달려 동암역에 내려 언뜻 시간을 보니 40여 분 걸렸다. 아직 날씨는 겨울여서 동암역을 중심으로 을씨년스럽게 보였지만 역 건물이 우뚝 솟아 인천분회가 자리한 양계단지에는 눈 아래로 시원스럽게 또박또박 자리잡고 있었다. 여기가 인천분회원들의 꿈이 서린 곳이라니 생각하며 사무실에 들어서니 검소한 작업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이태규 분회장과 송광수 이사, 그리고 이응만 총무님이 반갑게 두손을 맞잡는다.

◎ 이렇게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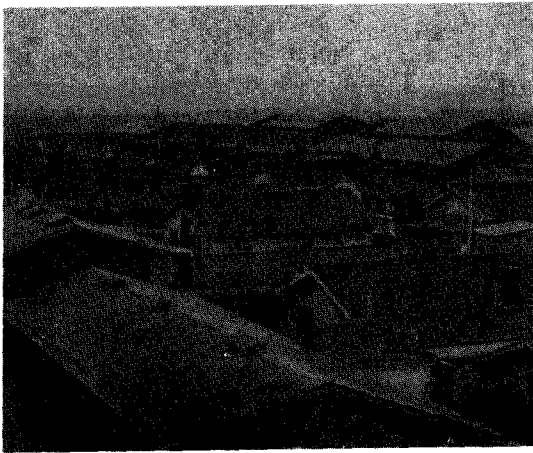
1970년 -공무원가족의 부업장려책으로 인천시 시범단지로서 선정받아 몇몇 가구들이 조그만

규모로 시작하였다. 부민양계조합과 동암양계조합이 그것이었다. 8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이 있었지만 생산물 판매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경영부실과 뉴케슬 등 질병의 강타로 흐지부지 회원들이 흩어지고 다시 73년 -남아있던 20여 명이 모여 부민양계축산협회를 발족시켰으나 역시 사양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양계에 회의를 느껴오던 중 76년 7월 -부근의 양계업자들과 힘을 합쳐 75명이 인천양계조합을 새로히 출발시켰다. 그리고 다각적인 경영및 사양기술과 양계전반에 관한 정보입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어 오던 중, 기왕에 양계에 몸담을 바엔 철저히그리고 정확한 계획하에, 생산에 있어서나 출하에 있어서나 생산자의 단합이 무엇보다 요구되어 1976년 12월 6일 대한양계협회 인천분회로서 가입하였다.

이렇게 대충 인천분회의 설립과정을 말씀하시는 분회장의 모습에서 담담함을 그러나 새롭게 출발하는 의지를 발견할수 있었다 (현재 육계 5만수이지만 77년 4월경에는 수용능력 40만수 예정이다)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분회장을 비롯한 임원및 회원들은 마치 전투에 임하기라도 한 듯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폭3.5m 총연장 길이 500m의 골목길을 완전포장했다. 단지가 조성되고 처음 시도된 협동작업이었지만 훌륭히 끝난 것이다. 하던된다는 실증을 보여준 일이었다. 그리하



(인천단지 전경)

여 모든 일은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한다. 병아리구입, 사료구입 및 약품과 생산,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물론 공동작업이란 이제 새삼스런 얘기는 될 수 없지만 인천분회원들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하였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① 조별 입추및 출하

회원을 몇개의 조로 편성하여 날자를 정하고 그 계획된 날자에 따라 입추수수 조정및 출하를 한다.

② 방역대책

단지내 종합 방역 프로그램을 짜고 대학을 졸업한 전문기사를 두어 방역에 철저를 기한다.

③ 현재 평사를 케이지로 전환시킨다.

④ 모범적인 양계단지 및 종계장을 견학하고 강습회등을 개최하여 양계 전반적인 지식을 높인다.

⑤ 출하

대부분 시장출하에 불과했으나 군남및 가공공장 개척에 힘쓴다.

라고 부푼 꿈을 피력하였다.

◎ 어떤 길이 원활한 협회와 유대강화의 길인가

이문제에 대해 분회장은 잘라 말한다. 생산자는 생산에만 주력해야 할 것이며 협회와

의 모든 대화는 분회에 상근자를 두어 상근자와 협회의 원활한 대화, 그리고 필요할 시 월 1~2회 분회 총회를 열어 상호간 의사를 교환하는 길이 보다 충실한 분회운영의 길이며 협회와의 원활한 협조 태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곧 인천분회에서는 실천에 옮기리라는 말에 송이사님이나 이총무님은 찬동의 표시를 한다.

◎ 요망사항

사실 이러한 사항은 욕심이며 염치없는 요구이지만 분회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이기에 말씀드리다며 이분회장은 목소리에 힘을 준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안되겠지만 협회내의 편제를 좀 더 확장하여 사료, 병아리, 가축약품 별로 그 질과 가격에 통제를 가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사실 양계에서만 보더라도 생산자가 주인이 되어야 할텐데 이젠 엉뚱하게 사료회사나 부화업자 혹은 약품회사가 주인의 방을 독차지한 꼴이라며 가령 사료를 보면 양계업자로서 경험에 비추어보면 때때로 그 질의 변화가 피부로 느낄 정도란다. 또한 병아리를 보면 양계업자가 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 선택권이 없는 것은 물론 요구한 병아리 숫자마저 못 받는 것이 허다해 경영에 차질을 주며 그나마 약추가 4~5%, 심지어는 10%이상 속출하지만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한다. 약품의 경우를 보면 최소한 백신류는 항상



〈회원들과 기념촬영〉

상비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구입이 용이했으면 한다. 덧붙여 협회에서는 각 일간지상에 다른 상품처럼 탁자 그날 그날 고시가격이 게재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한다. 또한 송광수 이사님은 가검물병성감정에 대해 꼭 실어달라며 사료회사나 부화업자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축병원에서 그 병성감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협회에 전문 수의사가 있어 양계업자들의 요구가 있을시는 언제라도 병성을 감정하고 처방을 내려줄 수 있다면 양계업자에겐 그보다 더 고마울테가 없다 한다. 그역시 예산의 뒷받침이 문제겠지만 그에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

◎ 회원 명단및 조직

아직은 뚜렷한 부서는 없지만 현재
분회장-이태규

이사-송광수, 김종남, 정충화, 박운연, 이병휘

감사-신동주, 유승태

자문위원-이기범, 김유희, 이병혁, 김종린
총무-이응만

류보희, 이석담, 홍영복, 김유배, 오순례,
강친옥, 김충화, 박상기, 김응도, 정광자,
김백호, 조학, 오동근, 김유성, 임춘자,
김근복, 허두양, 김경삼, 김윤기, 윤계희,
신동주, 이영휘, 최인갑, 김홍열, 송무영,
변학용, 윤기진, 장학명, 진국장, 김관섭,
최기욱, 정중일, 이형구, 조인철, 윤종삼,

이렇게 회원 47명으로 되었으며 앞으로 인
천 일원의 양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입
희망자가 있을시는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한다.

◎ 후기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과정이 그렇듯이 우
리의 인천분회도 역시 진통을 겪어왔고 또 겪
어 나갈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분회원들이 저
같은 협동과 희생이 계속 밀거름 된다면 또한
틀림없이 찬란한 기쁨과 보람이 같이 하리라고
확신한다. (태)

◎ 가 축 예 방 약

◎ 치 료 제

◎ 소 득 약

◎ 사 료 첨 가 제

◎ 기타국내외약품

총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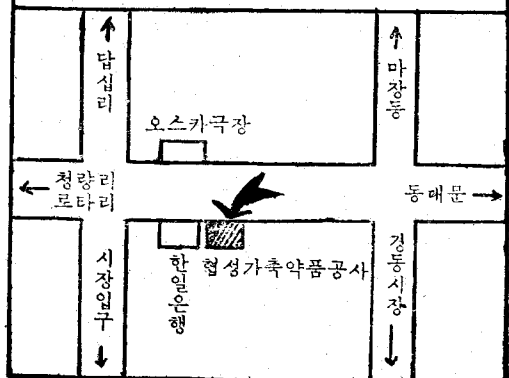
상담수의사: 연 두 희

★ 가축질병상담

★ 지방주문환영

TEL 주간 97-8779
야간 96-923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54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협성가축약품공사